

주가	환율	금리
+0.75	-0.14	-0.03
1,297.82 (코스피지수)	955.20원 (원/달러)	4.8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7.66	(+0.97)
다우(28일)	11,220	(+0.98)
나스닥(28일)	2,094	(+1.93)
닛케이	15,343	(+1.07)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4.31엔	(+1.28)
유로-달러 환율	1.2758달러	(+0.53)
3년만기 회사채	5.15%	(-0.03)
클레리	4.23%	(+0.01)

국내 조선업 호황 지속

상반기 건조량 늘어 수출액 15% 급증

국내 조선업은 올해 상반기 선박 건조량 급증에 힘입어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조선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선업체들의 수출액은 10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억9천700만 달러보다 15.4%가 늘어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증가는 2003~2005년에 수주 호황을 이끌었던 대형 컨테이너선의 본격적인 건조 및 인도 때문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올 상반기 수주량은 200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감소세에서 벗어나 작년 대비 1.3% 증가한 730만CGT를 기록했고, 건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560만CGT에 달했다. 이밖에 올 상반기 수주잔량은 건조량을 웃도는 수주잔액에 힘입어 작년 대비 6.4% 증가한 3천800만CGT로 평균 3.5년치에 달하는 조업물량을 확보했다.

조선공업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올 상반기 침체를 보인 가운데 조선업은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력했던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 중소기업 규제 신고 센터 운영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민원실 내에 중소기업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 규제는 ▲규제목적의 달성됐거나 시장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돼 폐지가 필요한 규제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인적·물적기준 완화 등 기존 규제 중 완화화가 필요한 규제 ▲후상적 기준의 구체화 및 특성별 차별화 등 기존 규제 중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규제 ▲기타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등이다.

신고방법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중기청 홈페이지(http://gj.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광주농협, 농업인 건강지킴이 배출

광주농협(조합장 김기호)은 지난달 31일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건강지킴이로 활동할 제 1기 '뜸사(뜸사랑회)' 수료생을 배출했다.

30명의 수료생들은 오는 9월께 설립될 광주농협 건강관리실에 배치돼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통 침뜸을 놓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성호 광주농협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뜸사' 교육을 강화하고 수료생을 추가로 배출,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光銀, 소기업·소상공인 대출 확대

광주은행은 1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소기업업을 위한 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사업대출' 대상은 총 자산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종전보다 조건을 완화해 대출대상을 확대했다. 대출한도는 최고 5천만원으로 연간 매출액과 소호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광주 비자카드 이용 및 가맹점 고객에게는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보다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85%, 보증료는 연 1% 내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국산 김치’ 한국식탁 점령

상상 첫 무역 역조...상반기만 670만달러 적자 광주·전남업체 수출 고전...기능성 김치로 차별화

올 상반기 동안 전국의 김치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아 사상 처음 무역역조현상이 발생하면서 광주·전남 김치업체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의 경우 내수가 절반으로 감소, 가동률이 '김치파동' 이전에 비해 70% 수준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지난해부터 아예 수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치수입 사상 최대=올해 상반기 김치수입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김치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중주'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31일 농림부와 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김치 수출액은 3천359만2천달러인데 비해 수입액은 4천28만9천달러로 669만6천달러의 무역

역수지 적자가 났다.

물량으로는 2004년부터,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 처음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기상중과중 여파로 인해 국내김치의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되는데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처음으로 무역역조현상이 발생, 김치 '중주'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김치 수입량은 작년 '김치파동'으로 10월 1만539t에서 11월 4천106t으로 급증했지만 12월 1만1천516t으로 원

상회복했으며 최근 월 1만4천~1만5천여 t 규모로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에서는 지난해 766t을 수입했으나, 올해는 전무했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국내김치의 수출물량은 1만2천303t으로 작년 동기보다 31.3%나 감소했고 수출액으로도 3천359만2천달러로 36.8% 줄었다. 광주·전남지역은 지난해 1천26t, 34억 원 어치를 수출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295t, 8억원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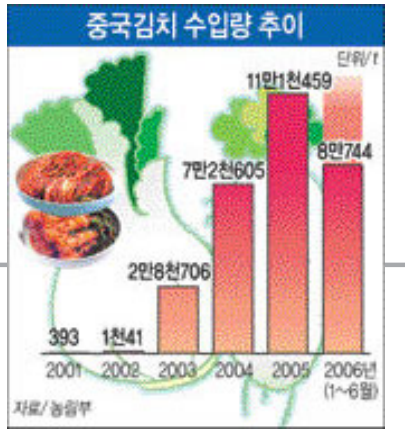
◇지역업체는 '고전'중=광주의 N식품은 지난해 '김치파동' 이후 매출감소에 시달리다가 아예 사명을 바꿨다.

연간 50억원, 연간 2천 t 규모를 생산하던 물량은 300여t으로 축소됐고, 10억원을 넘는 효소공용 '묵은김치'도 매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2억원 어치의 대 일본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한 건의 수출도 올리지 못했다.

N식품 대표는 "지난해 광주·전남의 경우 수입물량이 없었으나, 타지역 공급업체들이 지역식당가를 점령하는 바람에 내수조차 풀기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한숨지었다.

연간 60억원 매출을 올리던 나주 S사도 20억원에 맞추느라 급급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일본에만 350만불, 1천 t 어치를 수출하던 물량은 올 들어 50만불, 100여t으로 쪼그라들어 공장 가동률이 60~70%에 그치고 있다.

S사 대표는 "지난해 100엔당 1천



200원을 넘는 환율이 올해 800원선으로 급락한 것도 수출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김치파동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중국산 김치단가가 오르는 반면 한국산은 떨어지는 기현상까지 발생,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칼춤 김치·연잎김치 등 기능성 김치를 개발, 기존 김치와 차별화해 내수와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일본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햇사과 맛보세요’ 광주신세계 식품관이 경북 의성산 햇사과(아오리)를 선보이고 있다. 아오리는 조식이 차밀하고 과즙이 많아 사각사각한 맛이 일품으로, 개당 1천원이다.

불황·규제...창업의욕 꺾였나

광주 올 제조업 신설법인 59개... 2년새 64% ↓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법인도 감소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제조업 창업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는 올 상반기 제조업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32%나 급감하는 등 2004년 이후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기업의 창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올 상반기 제조업 신설법인은 144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9개보다 25%(15%)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4년 상반기 280개보다는 136개(49%)나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역내 제조업 창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수익을 낼만한 사업을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창업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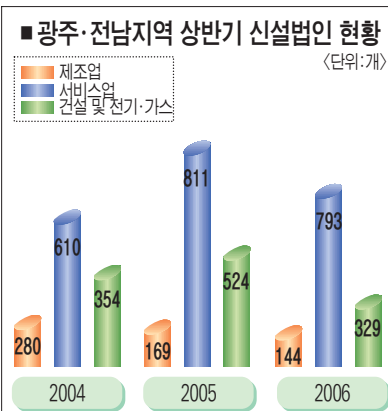
특히 광주는 최근 2년간 제조업 창업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 상반기 광주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59개로 지난해 상반기 87개보다 28개(32%) 줄었다. 2004년 상반기 제조업 신설법인이 164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새 105개(64%)나 감소한 것이다.

전남은 올 상반기 85개가 창업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82개보다 3개(3.6%) 증가했다. 하지만 2004년 상반기 116개보다는 31개(27%)가 줄어들면서 지역내 창업환경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및 전기·가스 수도사업 등의 신설법인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 신설법인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의 건설 및 전기 등의 신설법인은 329개로 지난해 상반기 524개보다 195개(37%) 줄어들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창업의욕 저하 현상을 반영했



다. 도소매·숙박·음식점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도 올 상반기 793개가 창업하는데 그쳐 지난해 상반기 811개보다 18개(2.2%) 감소했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전국의 제조업 신설법인은 4천70개로 지난해 상반기 5천 505개보다 1천435개(26.1%)나 줄었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2003년 1만2천 445개에서 2004년 1만1천78개(-11.0%), 2005년 9천435개(-14.8%) 등으로 줄어왔으며 올해도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제조업 창업 감소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반도체·휴대전화·가전 'IT 3인방' 수출

상반기 427억달러...2003년 이후 최저

전통적인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휴대전화·가전 등 소위 'IT(정보기술) 3인방'의 수출이 올 상반기에 모두 뒷걸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한국경제의 추진체인 수출,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작동했던 IT 주요 품목의 부진으로 올해 경수수자 흑자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휴대전화·가전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의 상반기 수출액은 427억달러로 전년동기의 429억달러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의 453억달러에 비해서도 5.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83억달러

를 기록했던 2003년 하반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반도체·휴대전화·가전 등 품목별로도 상반기 수출액이 모두 전기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했던 반도체 수출액은 149억달러로 작년 동기의 146억달러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전기인 지난해 하반기의 154억달러에 비해서는 줄어 들었다.

지난해 수출품목 3위에 올랐던 휴대전화는 89억달러로 2003년 하반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수출액은 2004년 하반기 101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출 품목 9위인 가전도 37억달러로 2004년 상반기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신약 거품 너무 많다”

클리백 등 2배 높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조사

상당수 해외신약의 국내가격에 거품이 심하다는 주장이 약사단체에서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수 해외신약의 국내가격이 실거래가에 가까운 미국 현지 연방구매기준(FSS) 가격이나 국공립병원(Big4)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백혈병 치료제인 클리백은 국내가격이 2만3천45원으로 FSS 가격(1만9천135원)과 Big4가격(1만2천490원)보다 높았고,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도 국내가격(16만4천원)이 FSS와 Big4(이

상 8만5천80원) 가격보다 두배 가량 비쌌다.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 역시 국내가격(6만2천10원)이 FSS가격(4만9천104원)과 Big4가격(3만7천966원)보다 훨씬 높았다.

FSS 가격은 미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구매가격의 가이드라인이며 Big4 가격은 대형병원의 도매가 가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 약품을 구입하는 가격은 FSS나 Big4가격보다도 오히려 낮다”며 “신약의 국내가격 결정기준을 해외에서 판매되는 약의 실거래가로 변경해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내 약값의 거품이 심한 이유로 신약가격 협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의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 자연 정화 활동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완도 명사실리에 하계 휴양소를 운영중인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조남일) 임직원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공장은 지난해까지 경남 등 타지역 해수욕장을 이용했으나, 올해부터 완도를 하계휴양지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보탬을 주기 위해 2천여명의 직원을 이끌고 왔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정인기구(주) 본사	[광주]대리점 관리자 대졸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2	032-810-3043
(주)한국텔레콤(케티)협회	[빅마켓-드림텔레콤]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8/02	062-956-7474
(주)재능교육광주	정규직 재능선생님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3	062-973-1132
(주)그린벨	KTF광주점서비스센터 38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8/03	042-223-4900
(주)다해전력	문서관리, 경리, 업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8/05	062-361-2246
(주)동화하이테크	정규직 관리직 - 기획/총무 (환경/안전 담당)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8/05	062-949-8322
(주)회화유통협회	웹 기획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8/05	062-710-7108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서울]부문별 신입/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06	02-360-7143
(주)소림기계설비	건설업종 경력자 경리	고졸/경력5년	1,200~1,400	08/06	062-269-2900
(주)뉴젠팜	광주지역 뉴젠팜 영업직/사무직사원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8/06	011-627-7870
INBET(인벳트)	웹프로그래머/네트워크관리 인제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8/10	062-367-906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